

“한국 법 배우니 든든”...유학생 법률 강의 ‘호응’

조선이공대·광주 동부경찰서 연계
마약·보이스피싱 등 생활 밀접 주제
“안전·안정 위해 제도적 지원 등 강화”

“보이스피싱?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번 강의를 듣고 나니 막연했던 걱정이 사라졌어요.”
한국 생활이 아직은 낯선 외국인 유학생 수십 명이 최근 조선이공대학교 3호관 대강당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조선이공대 국제교류원은 광주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2025학년도 상반기 성폭력 예방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김종선 광주 동부경찰서 경사는 성폭력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 처벌 법령까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유학생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



조선이공대 국제교류원은 광주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최근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상반기 성폭력 예방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조선이공대학교 제공)

을 가정해 질문을 던지고, 자칫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진 ‘한국 생활 속 법률 안내’ 세션에서는 마약 예방, 보이스피싱 대처법, 합법적인 아르

바이트 규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네덜란드 유학생 델지 심런은 “평소 한국 법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

명을 들으니 이해가 쉬웠다”며 “특히 신고 절차나 대처 요령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아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레흥득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률이나 보이스피싱 예방 같은 내용을 듣고 경각심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이공대는 국제교류원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의 출입국 지원과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기술인력 양성 전공수업,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글로벌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노찬승 조선이공대 국제교류원장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전남개발공사, 창립기념일 맞아 청렴워크숍

전남개발공사는 9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본사에서 기념식과 함께 임직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워크숍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전남개발공사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윤현석 대한신호남포럼 사무국장 초청 강연을 통해 전남의 발전 방향,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메시지를 공유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도와 공사 업무 관련 유공자 15명에 대해 도지사, 사장 표창을 수여한 뒤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새 정부 출범에 맞맞춰 정책에 부응하는 경영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청렴워크숍에선 장충모 사장의 청렴특강과 전 직원 청렴서약식이 진행됐다. 장 사장은 청렴특강을 통해 2025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공사의 청렴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AI기술 대중화에 따른 딥페이크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과 온라인을 통한 기관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 부패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다, 디지털 윤리교육도 병행했다.
장충모 사장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의식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디지털 청렴소양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개발공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대 ‘개교 73주년 기념식’...“미래 100년 도약”

전남대학교는 “최근 대학 내 컨벤션홀에서 개교 7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류혜경 총동창회장, 정병석·지병문·김운수 전 총장을 비롯해 학생·교직원·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전남대의 발전취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응원했다.
기념식에서는 대학의 명예를 빛낸 동문과 교내 구성원에게 각종 시상이 이어졌다. 후광학술상은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용봉인 명예대상은 김웅기 글로벌세아 그룹 회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수여했다.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은 김경호 서울시 광진구청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이동원 MBN 대표이사, 문재웅 기아차 광주공장장, 김병주 제22대 국회의원에게 수상했다.
용봉학술상은 김도형 화학공학부 교수, 한의송 인문학연구원 부교수에게 돌아갔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난 73년간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민족·민주 대학으로서 이제는 ‘지역이 살리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광주 남구의회 ‘2025년 부패 방지 교육’

광주 남구의회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의 일환으로, 앞서 참석자들은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청렴선서’를 했다.
본 교육에서는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강사가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례 중심 특강을 했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뢰자 처벌규과 관계자가 지방의회 정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남호연 의장은 “이번 교육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전남농협, 6월 ‘이달의 새농민상’ 2부부 선정

농협중앙회 농협 전남본부는 9일 ‘6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이용권·김태은 (진도군 임회면) 부부, 강승배·김정자 (순천시 덕월동) 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용권·김태은 부부 (영이네농장)는 대규모 수도작을 하면서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직파재배 농법을 선도적으로 시작했으며 경영비 절감과 타 지역 벤치마킹 및 친환경 재배 기술교육을 통해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 실천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진도 관내 여러 사회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지속해 지역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강승배·김정자 부부 (행복농장)는 지난 2000년 귀농해 오이 하우스 2동을 비롯해 관상수를



경작하고 있다. 초기영농 당시 취청오이를 주로 재배하다 백오이로 품종 전환을 시도해 본인만의 노하우를 습득, 고수익 창출을 이뤄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선진영농기술 보급, 후계농업인 육성 등 선도 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태호 기자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국제요리대회 전원 입상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학생 14명이 최근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홀에서 열린 ‘제6회 디포 인덕션(Dipo Induction) 요리대회’에 출전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9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디포 인덕션 요리대회는 업소용 인덕션 전문기업 디포 인덕션이 주최, 인덕션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국제무대다. 심사위원도 독일, 스위스, 중국,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셰프들로 구성돼 글로벌 경쟁력을 테스트했다.
동강대는 은메달 5·동메달 9개를 획득했다.
특히 정민혁(1년)씨는 메인요리 부문에서 서양의 메인요리에 한국의 풍미를 살린 요리와 현대적인 플레이팅으로 전체 2위에 올랐다. 정씨는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내 WACS(세계조리사회연맹) 요리대회 출전 경비를 지원 받는다.
오명진 학과장은 “동강대 융복합구경클래스



실에는 지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인덕션을 활용한 실습실이 구축돼 다양한 조리법으로 실력을 쌓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무대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는 지난달 30·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셰프 챌린지(GW ANGJU CHEF CHALLENGE)’에서도 출전 학생 21명이 전원 수상했다. /김다이 기자

목포농협, 고하도서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목포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 박정수 조합장과 임직원 30여명이 고하도 영농회에서 ‘2025년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조합원의 소득 증대 및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독거·고령·장애농가 등 영농 취약농가로, 목포농협은 매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농협 임직원들은 ‘2025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통해 목포시 고



하도 일원의 환경미화도 병행했다.
박정수 조합장은 “이번 일손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조기선 광주CBS·조충남 전남CBS 대표 취임



조기선(57) 광주CBS
신임 대표와
조충남(55)
전남CBS 대
표가 9일 취
임했다.

조기선 광주CBS 대표는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미주리주립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연수했다.
조 대표는 1988년 CBS 공채 16기로 입사해 광주CBS 기자를 거쳐 CBS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남CBS 보도제작국장, CBS 기획조정실 홍보부장, 광주CBS 보도제작국장, 전남CBS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방송대상,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보도상,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조충남 전남CBS 대표는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CBS 광주방송 PD로 입사했으며 2009년 CBS 본사로 옮겨 ‘시사자극 정관용입니다’ CP를 거쳐 CBS라디오 편성부장을 역임했다. /최명진 기자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취임



광주문화재단 제6대 사무처장에 배동환(61·사진)씨가 취임했다.
배 신임 사무처장은 음악 예술과 교육,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27년 6월8일까지 2년간 광주문화재단의 행정과 사업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최명진 기자

목포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배 처장은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 일반대학원 호남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1984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목포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며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했고, 이후 초당대학교, 명진대학교, 성화대학교 등에서 겸임 및 전임 강사로 재직하며 음악 교육과 인재 양성에도 힘써왔다. /최명진 기자



장흥경찰,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 협력단체장과 사회단체장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장흥경찰서는 경찰서 이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협력·사회단체장을 추진위원회로 위촉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위원장 등 운영진을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전남경찰청 관내 35년 이상 경과 된 6개 경찰서 중 장흥경찰서만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된 데다 민원인 편의시설 부족, 잦은 누수 등으로 지속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명환 장흥문화원장은 “경찰서 신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경찰서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추진위원회와 장흥경찰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인사

동신대 ▲박성일 기획처장 겸 국책사업총괄관리본부장 ▲김은정 기획부처장(1)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부장 ▲주진걸 기획부처장(2) ▲선상욱 교무부처장(1) ▲임순호 교무부처장(2) 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박정은 혁신지원실장 겸 교육성과관리센터장